



환경 호르몬 걱정 없는 링거백 개발

의료용 필름 위생 안전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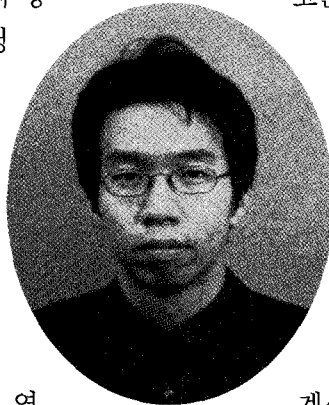
이상진 / (주)이생 기술연구소 대리

제 15회 한용교 포장인상 수상자 중 연구개발 부문에 (주)이생 기술연구소 이상진 대리가 선정됐다.

“이렇게 값진 상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 수상은 저에게 만이 아니라 함께 했던 신소양 소장님을 비롯해 호남 석유화학 연구팀들 모두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연구개발에 매진해 좀더 좋은 제품, 좀더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상진 대리는 환경 호르몬 걱정 없는 폴리프로필렌계(PP) 링거백을 개발에 참여해 의료용 필름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한 것이 인정돼 이번 수상을 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건강과 환경 문제에 가장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두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낸 것이다.

“이번에 개발한 ‘환경호르몬 없는 링거백’은



고온 살균시 생기는 누액의 위험성을 낮췄으며, 복합다층 구조로 구성된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것을 국산화시켜 앞으로는 국내 뿐 아니라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설명했다.

미국에서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큰아버님의 권유로 포장을 공부하게 됐다는 이상진 대리가 포장에 발을 내딛기까지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한다.

“처음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입학신청 준비사항이 까다로워 Electrical Engineering 과에 입학한 뒤 방학기간 동안 큰집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버지의 추천으로 포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전과하여 Packaging Engineering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재학중이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위한 밑거름으로

뉴욕 주립대는 해당 학과가 없어 인디애나 주립대로 옮겨 학부과정을 마친 후 미시간주립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석사를 마친 후에는 General Motors에서 포장관련 업무를 담당해 기초를 다진 후 한국으로 돌아와 (주)이생에 기술연구소에 입사한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기업의 경우 처음 입사 후 적응 기간과 훈련기간을 거친 후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한 업무가 주어지기 마련이다. 이상진 대리의 경우 (주)이생에 입사함과 함께 여느 기업의 과장급 이상의 직급자가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를 믿고 중요한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열심을 다했습니다"라는 이상진 대리는 "일본의 경우 수액에 PVC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중국은 용기가격별로 수액의 정부 고시가에 차등을 두어 Non-PVC와 PVC가

격의 차이를 극복하여 대등하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국의 이러한 정책의 이면을 좀 더 세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약청이나 기타 보건기구에서 당사의 Non-PVC 개발에 좀더 관심을 보여 국민건강에 보탬이 되며 더 나아가서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새로운 개발에 대해 투자를, 관련 단체는 적극적인 홍보를, 업계에서는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제품을 생산하며 서로 상호보완 단계를 이루며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위해 노력과 시간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 아낌없이 투자하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정진하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포장인이 되길 기대해 보며 이상진 대리의 활약에 주목해 본다. ☞

권해진 기자

신제품 및 업체 소개
월간 포장계 편집실
(02)835-9041

E-mail : kopac@chollian.net